



박주용 이주영 선교사 기도편지

주소 변경: 0712khs@naver.com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G 선교회 국내 대표 사역

올 연초에 열렸던 G선교회 연례회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강의와 개인 면담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되었고, 자신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국내 행정과 선교사 케어 사역을 위임 받아, 올해 초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과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돌보며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선교 사역 경험과 하나님의 날마다 부여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 케어

G 선교회 파송선교사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TEE 「그리스도의 생애」 수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0월 말에 과정을 마친 후에는 각자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사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송선교사들 간의 연합과 멤버케어를 위해서 매월 화상 정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순번을 정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한 달 동안의 삶과 사역,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월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한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S 선교회 H신학교 TEE 훈련 잠정 중단

지난해에 이어 6월 신학기부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TEE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월 초에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 과정 3단원까지 공부했고, 이후에는 세 명의 강사가 3개월마다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가운데 교회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한 명이 공안에 연행되면서 현재 모든 수업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늘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사역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모두가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연행된 지도자가 무사히 풀려나고, 신학교 수업도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본국 사역

저희가 섬기던 지역과 저희 주변 상황에 심상치 않게 압박이 있어서,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선교 여정을 조금 천천히 걸어가고자, 16년 만에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바로 다음 날, 투병 중이시던 어머니께서 낙상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셔서 현재는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기존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직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 오신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26년 8월 박주용 이주영 조셉 다니엘 드림

기도제목

1. 저희 가족이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2. 안식년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고 회복을 얻고, 맡겨진 사역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S 지역 H신학교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중단된 신학교 일정이 속히 정상적으로 재개되게 하소서.
4. G 선교회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